



극동예술연합이 기획한 유니온아트페어.

전국 곳곳 '작가 미술장터' 매년 활기

문체부 지원 사업... 6개월간 7만 5000명 관람 · 1만 8000점 거래

2018 작가미술장터에 7만 6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작가 1200여 명(팀)이 참여했고, 1만 8000여 점이 거래됐다. 작가 1인당 평균 15점의 작품(에디션, 아트상품 포함)을 판매한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주최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가 주관하는 2018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이 매년 활기를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서울 13곳, 전주 6곳, 광주 3곳, 부산 2곳을 비롯해 양양, 청주, 충주, 순천, 제주 등 전국 32곳에서 17개의 2018 작가미술장터가 열렸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작가미술장터'는 미술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작가들이 직접 작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장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판매작품은 200만 원 이하 평균 30~50만원의 중저가 작품으로 구성돼 일반 시민들이 보다 쉽게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작가에게는 작품 판매 수익금 전액을 돌려 주어 작가들의 자생적 자립을 돕는다.

2018 작가미술장터에는 '해변·목욕탕·여관·카페·광장(파트론 비치 아트페어, 서대문여관아트페어, 블라인드 포스터전, 연희동 아트페어, 集技類(집기류: 모을 집, 재주 기, 무리 류)와 같은 공간에서 열렸다.

'작가가 셰프가 되어 요리해 준 음식을 먹으며 작가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아티스트 포장마차(2018 연희동 아트페어), 아트투어버스를 타고 작가들의 작업실을 방문하여 작업 과정을 들여다보는 아티스트 오픈스튜디오(HAO : OK션[옥션] 2018), 예술 전문가로부터 내 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에 대한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홈 아트 컨설팅(Art at Home II '예술이 가득한 집'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운영했다.

'미술전시가 목욕탕에서 열리고 작품명과 작가명이 가려진 전시는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반응이 많다.

◇ 수도권-비수도권 문화 간극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장터 확대

'2018 작가미술장터'는 2017년 비수도권에서 열렸던 6개의 장터를 10개로 확대하여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광주 - Art at Home II '예술이 가득한 집', ▲청주 - 2018 아파트, ▲전주 - 2018년 아트 레지던시 미술장터 Art market Stamp-Tour in Jeonju, ▲광주 - 韓技類(집기류: 모을 집, 재주 기, 무리 류 / Zip-kki-ryu), ▲부산 - 화이트테이블 아트페어 부산 등이 열렸다.

'화이트테이블 아트페어-부산'의 정수현 기획자는 '2018 작가미술장터'의 주목할 만 한 점으로 '지역 작가들이 지역 내 판로를 개척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꼽았다. 장 기획자는 "서울과 비교해 비수도권 미술시장은 양적으로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유능한 지역 예술인을 발굴해 그들의 자립을 돕는 '작가미술장터'는 지역문화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2018 작가미술장터 참여작가-미술시장 잇는 징검다리 역할

'2018 작가미술장터'는 미술시장 관계자 및 기업과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후속 성과를 거뒀다.

'화이트테이블 아트페어 부산'을 기획한 '화이트테이블예술인협동조합'은 센텀 신세계백화점의 공식 제의를 받아 지난 11월 'Young Artist Festival'이란 제목으로 신진작가 지원전을 개최하였으며, 마포구 초청으로 '마포아트마켓'을 단독 기획·운영했다.

또 2018 연희동 아트페어를 기획한 '무소속연구소'는 장터 기간 중 동서식품의 카누 시그니처 아트마켓팅 제의를 받아 '카누 시그니처'에 참여했고, 작품 판매로까지 이어졌다. '유니온아트페어 2018'을 기획한 '극동예술연합'은 2018 홍콩 크리스티 옥션 한국특별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2019년 작가미술장터는 미술시장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019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의 공모 신청은 2월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대한문인협회 장수군지부 7대 회장에 고강영 씨 선출

대한문인협회장수군지부 7대 회장에 장수군사회보장협의체 고강영 공동위원이 선출됐다.

장수문협은 지난 2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고강영 씨가 차기 회장으로 추대됐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월부터 2021년 12월 31까지 3년이다. 고강영 회장은 2006년 '대한문학'으로 등단한 수필가로 '행춘수필문



학회원, 장수문협 수필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농협장수군지부 차장, 장수농협장, 민주평통장수군협의회회장, 장수달남노인복지센터장,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을 역임했다.

고강영 회장은 "앞으로 초대회장 故 효산(孝山) 고두영 선생님을 기리는 문학행사와 잊혀져 가는 장수출신 문학인들의 발자취를 찾는 일, '장수문학상'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국악인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미래 국악의 발전 위해 최선을"

국악인 신년 인사회... 500여명의 국악인 참여 화합 다져

국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악 발전을 기원하고 화합을 다졌다.

국립국악원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2019 국악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모두가 누리는 기해년, 소망을 담다'를 주제로 500여명의 국악인이 함께했다.

황수경 전 KBS 아나운서가 사회를 본 인사회에서는 지난해 국악계를 돌아보는 영상을 시청했다.

2018 온나라출품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윤종현과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수상팀 '박한결X장명서', 2018 국악동요부르기 대회 수상팀 '소리풍경', 전통연희 '청배연희단'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 후 다찬회에서는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정재숙 문화재청

장,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과 안숙선 명창 등의 신년 덕담이 이어졌다. 임재원 국립국악원원장의 환담과 기념 촬영 등도 마련됐다.

김 차관은 "세계인을 사로잡은 한국 문화의 뿌리에는 우리 전통이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국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람이 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이 더욱 건강한 삶, 여유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립국악원장은 "전통이 시대의 요구를 수용해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립국악원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미래 국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